

與 “일자리 창출 등 국익 부합.. 조속 처리” 野 “농업 등 피해산업 구제책 마련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 한미FTA 비준 찬반 공방

여야는 19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의 한미FTA 이행법안 의결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중소기업·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5.66% 증가,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시장 선점 등의 효과가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은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의 재제협상 요구에 대해 “시점 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 시절 한미 FTA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입장을 변경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제협상안 10개 중 9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해 놓은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제협상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또 김형식 총리에게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가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농업 등 FTA 피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대책과 양국 간 이익 불균형의 해소를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과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

을 비롯해 농어민·축산업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모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FTA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회가 사전에 반드시 내용과 체결과정 등을 알아야 한다”면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협상 자체가 망가진 것은 정부

가 무슨 말을 해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내용 중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FTA 발효 이후 나라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FTA 폐기뿐”이라며 “민주당은 FTA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형식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립뉴스

김총리 “한미FTA 재제협상 불가능”

“비준안 늦어지면 발효 지장” 10월 처리 협조 당부

김형식 국무총리는 1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재제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이달 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2 재제협상안’에 대해 “재제협상은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2부분, 통

상절차법과 무역지원조정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월1일 발효에 지장이 생긴다. 되도록 10월 중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미 FTA의 피해 대책에 대해 김 총리는 “농어민 보호대책의 경우 별도로 논의되고 있고, 국회 농식품위

원장과 여야 양당 간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관계 부처에 넘겨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피해지원 규모를 (22조1000억원으로)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추가로 여러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상당한 진전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소통노력 강화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더 많은 접촉을 통해 설득과 소통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어제 청와대 초청 오찬에 야당 삼임위원장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국회에 나와 직접 말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미 FTA 체결 조건 자동차 세제 개편엔 광주·전남 매년 85억 세수 감소

박주선 의원 밝혀

한·미 FTA 체결 조건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이 체결되면 자동차세 개편으로 매년 1388억원씩, 향후 5년 동안 6940억원의 지방 세수가 줄어들며 광

주와 전남은 매년 39억원, 46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유부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3단계로 줄어들면서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또한, 한미 FTA 체결이 된다면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

는 개별 소비세법 개정으로 2012년 2200억원, 2013년 3300억원 등 향후 5년간 2조9000억원(기준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박 최고위원은 “지방재정 보전방안은 의미있는 한미 FTA 타결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달러로 확대

한일 정상·확대 회담 FTA 교섭 조속 재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양국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재 130억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립뉴스

간 원·엔 통화스와프가 300억달러로 확대되며, 기존 차양마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의 한은과 일본 재무성간 달러·원/엔 통화스와프가 설정된다.

두 정상은 또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

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서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달러·원/엔 통화스와프가 설정되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서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재 2백만 석을 반환해 달라며 1백만 석 및 왕세자가례도감예금 2백만 석을 인도했다. /*연립뉴스

2차전지·줄기세포 내년 2천억 투입 정부, 생태계 발전형 10대산업 선정

정부는 19일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프로젝트 선정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 가능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고충 없는 성장을 해낼 수 있는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10개 분야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에너지저장형 전력반도체 ▲스마트 LED 시스템조명 ▲해상풍력 ▲통합 물관리기술 ▲스마트 콘텐츠 ▲차세대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의료시스템 ▲줄기세포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17개 신성장동력과는 별도로 이들 산업 분야에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립뉴스

김태홍 전 국회의원 장례식 민주언론인장으로 치른다

지난 18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태홍 전 국회의원의 장례식이 민주언론인장으로 치러진다.

‘참 언론인 고 김태홍 선생 민주언론인장 장례위원회’는 19일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민주언론인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전·현직 언론인과 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 등을 주축으로 구성했으며 20일 세브란스 병원과 국립 5·18 묘지 등에서 영결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고승우·김경길·김진표·김희택·박우정·박정진·박지원·박희강·정남기·정연주·정찬용·최철·황석영 등 10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잡음없이 잘 들린다 음성증폭기 블루투스형출시!!

속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너무 편리한 소리큐 S20 고성능 음성증폭기



음성이 잘 안들리실 때!
두손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주변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TV를 시청할 때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핸드폰 통화할 때! 상담할 때!
강의를 하면서 대중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식! (고속충전·정시간 사용)

귀에 꽂은 상태로 작은소리를 크게 듣고싶은 분들에게 소리큐 S20 음성 증폭기는 좋은 친구가 될것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특별우대 ★ 어르신께 최고의 선물 ★

인체공학적 초소형 초경량 블루투스형 설계로 성능을 올리고 가격은 내리고! 간편한 휴대, 간편한 사용!
무게 9g 길이 5.5cm의 초경량 초소형 인체공학적 블루투스형 설계로 착용시 무게감이 없어 편안하며 TV시청, 운동, 업무처리등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부에 노출시 거리가 멀어져도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사용 할수 있게 설계된 첨단 고성능 음성증폭기로 성능 올리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국내기술로 개발 생산하여 뛰어난 품질과 사후관리를 1년간 무료교환 보장합니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일상대화 | 텔레비전 시청 | 공연관람 | 강연회 | 조류관찰 | 자연관찰 | 야간감시 등등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20-6번지
송정한방병원 건물 4층 원일엠에스

문의 : 062)942-9822



한옥마을 조합원 추가모집

금번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일대에 한옥마을을 조성코자 현재 농업수산물부업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향후 지정예정이며, 경질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면적 32.195㎡(구, 9.739형) 대지에 31세대 분양
- 고서-대덕간 도로확장공사 예정, 개통시 광주-대덕간 분소
- 순천 및 서물방향 진출용(청평 IC)
- 버스노선 518, 303번 운행 말바우시장 20분내 도착가능
- 조합원 기금비 200만원 납부
-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전력공급 시스템설치 (세대당 설치비 부담 없음)
- 제1공금 3,000만원(연리 2%까지 대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향후 한옥마을을 민박촌으로 지정 예정이며 청평 슬로시티 및 담양 인근 관광객 숙박유치 (메타세콰이아길, 죽녹원, 관방제림, 소쇄원, 식영정 등 주변 관광지 다수)로 전원생활과 소득창출 가능

조합원 가입문의 010-7210-6118 · 010-4205-2340 · 010-4025-6911 · 062-265-3125
현장위치 :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212번지 일원